

## 도전 -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누가복음 6장 27-35절

27.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28.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29.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네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30.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제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31.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32.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 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33.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34. 너희가 밭기를 바라고 사람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밭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 주느니라
35.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 Intro.

지난 해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묵상하며 깨닫게 된 사실 중 참 충격적인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5월 11일 자 “훈련해야 할 사랑” 중에 나오는 글입니다.

“성령께서는 내가 사랑스러워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분의 속성이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심을 알려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도전을 받는 것은 ‘사랑에 대한 기준’을 다시 세우라는 것입니다.

본문 누가복음 6장 32절.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 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오늘 말씀이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흥미로울지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이 있습니다. 5-7장에 걸쳐서 이 말씀을 전하신 예수님은 산에까지 올라온 제자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산상수훈 말씀은 불특정 다수를 향한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오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을 위한 말씀이라고 말이죠.

그런데 누가복음 6장의 말씀은 ‘평지 설교’로 알려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이 산 위에서 하신 말씀이라면, 누가복음의 말씀은 누구나 빨을 딛고 살아가는 땅, 평지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누구나 올 수 있는 땅, 그가 가난하든지 병들었든지, 이방인이든지 주님 앞에 자유롭게 나올 수 있는 평지에서 주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들을 향해 주님이 하신 말씀이 ‘원수 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들이 평소에 듣지 못하던 말씀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새거처럼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세상 어떤 종교도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원수 사랑은 이전에는 들어보지 못했던 말씀입니다. 어떤 랍비도 지금까지 이런 메시지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구약의 율법에도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지,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없었습니다. 물론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도 사랑을 말합니다. 굳이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랑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사랑에 대한 이야기는 넘쳐나지요. 사랑에 대한 노래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어디에서도 원수를 사랑함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원수는 사랑할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대하는 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고운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기존의 틀을 완전히 깨시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역사 속에 뚫고 들어온 말씀이 바로 원수 사랑입니다.

이 세상 한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욕구’는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는 갈증에 시달리게 합니다. 무엇보다 누군가에게 사랑 받는 것을 확인하려는 ‘애정욕구’ 그리고 자신이 하는 일을 인정받으려는 ‘성공욕구’가 그런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는 한 순간도 이러한 욕구에서 벗어난 적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우리는 이러한 욕구로 인해 시달리는 것일까요?

헨리 나우웬은 이러한 욕구들이 ‘과거의 상처’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렸을 때 누군가에게서부터 받은 거절감 혹은 교회나 어떤 단체로부터 받았던 상처들이 가슴 속 깊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 상처를 극복하려는 마음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보상받지 않으면, 인정받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무서운 것은 이러한 인정욕구들이 ‘폭력적’으로 변질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폭력적이란, 상대방에게 인정과 사랑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욕구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채워지지 않으면 상대방을 물고 끌고 상처를 냅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본다면, 누군가를 힘담하고 있는 자신의 속내가 무엇이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고 마음속에 깊이 결심을 하게 된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를 보게 됩니다.

이러한 상처를 극복하는 길은 무엇일까요?

헨리 나우웬은 ‘처음 사랑’을 아는 것이 해결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너는 내 사랑으로 태어났다. 내가 사랑으로 네게 숨결을 불어넣었고 사랑의 말씀으로 너를 창조했기에 너는 내 사랑의 성육신이다. 내 안에는 미움도 없고 복수심도 없고 원한도 없다. 나는 너를 완전히 받아들인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 이 사랑을 믿을 수 있겠느냐?

근원적 사랑은 근원적 복이다.

근원적 사랑은 근원적 수용이다.

원죄나 최초의 거절감을 말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근원적 사랑에 대해 말해야 한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음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그 처음 사랑이 모든 창조적 인간관계의 기초다. 우리가 서로에게, 그리고 함께 세상으로 나가 전하려는 것도 바로 그 사랑이다.”

이 처음 사랑을 알게 되면 우리 존재의 중심에서부터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구나!”

그러면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해도 보답을 바라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원수 사랑’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바로 그런 의미로 들려옵니다.

“너는 이미 넘치도록 사랑받는 존재이기에 작은 이익 따위는 생각하지 않아도 된단다.”

### 깨어진 관계 그리고 회복

깨어진 관계의 시작은 늘 상대방에 대한 요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물론 이러한 요구가 이기적 발로에서부터 전적으로 나오는 것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충분히 그 사랑을 확인받고 그리고 확인하고 싶은 욕구가 있으니 말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숨 막히는 요구가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사랑’이란, 결국 끝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해서 ‘파국’으로 치닫는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가 깊이 새겨야 하는 것이 바로 ‘처음 사랑’입니다. 우리의 모든 관계를 하나님의 관계, 즉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에서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음은 내 심연의 자아가 처음 사랑을 만났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도 없고 한계도 없다. 우리는 관계를 맺을 때 상대방도 그 처음 사랑으로 사랑받는 존재임을 인식해야 한다.”

우리는 끊임없이 관계를 형성하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때로는 결혼이라는 관계로, 때로는 우정이라는 관계로, 그리고 때로는 어떤 공동체의 관계라는 이름으로 만들어 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관계 속에서 내 사랑을 확인하려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이라는 것은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을 지극히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격’이라는 말의 영어 단어가 ‘person’입니다. 이 단어는 라틴어의 두 단어가 결합된 것인데,

‘페르’ (per)는 ‘통하다’라는 뜻이고 ‘소나레’ (sonare)는 ‘소리를 낸다’는 뜻입니다. 즉, 인격이란 소리를 전달하는 통로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서로 인격체가 된다고 말할 때는 상대방을 통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조금이라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든지, 그 사람을 통해 근원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우리의 욕구가 이루어지는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처음 사랑을 보는 것입니다.

이런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둘 모두 하나님의 동일한 사랑을 받았고, 어떠한 영역으로 우리를 부르시든 함께 그 사랑을 축복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말입니다.

헨리 나우웬은 아주 깊은 철학적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참 좋습니다.

“우리가 그 처음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집에 거하면 내 안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타인 안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알아보신다. 반대로 마음속에 악마가 있으면 사방에 귀신이 보이고, 우리 안에 어두운 세력이 있으면 도처에 어두운 세력이 보인다. 마음이 어두운 사람의 눈에는 그런 사람만 보이는 법이다. 어둠은 어둠에게 말하고 악은 악에게 말한다. 그러나 사랑은 사랑에게 말하고 하나님은 하나님께 말씀하신다.”

한 번 우리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최호균 목사 설교 중에서)

“과연 내가 미워하고 증오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도 미워하실까요?” 언젠가 저의 아들 둘이 울면서 싸운 적이 있습니다.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모르겠는데 장난을 하다가 큰 소리가 났습니다. 두 아들이 제 앞에 와서 서로 억울하다고 하며, 하나는 동생이 잘못했다고 하고, 다른 한 명은 형이 잘못했다고 합니다. “아빠가 어떻게 해줄까?” 했더니 상대방을 혼내달라고 합니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둘 다 혼냈습니다. 아버지 된 저의 입장에서는 둘 다 자식이지요. 마태복음 5장 4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복음의 기쁜 소식은 하나님께는 원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극진히 사랑하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차별이 없으며 모든 사람에게로 향하는 것입니다.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해를 비춰주시고 비를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원수로 여기고 악인이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원수라는 생각은 나의 생각이지요. 내 기준에서 원수입니다. 그 사람이 원수라고 누가 말해준 것이 아니라 내가 정한 것입니다. 우리가 왜 원수를 사랑하지 못할까요? 그 사람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저 사람은 부당한 대우를 받아야 마땅하다고 평가하면서 자비나 친절을 베풀기를 스스로 거절하고 있다면, 내가 심판자고 내가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C. S. 루이스의 책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소설에 보면 지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천국에 올라갈 수 있는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천국의 문턱에서 대부분이 거절을 합니다. 이유는, 자기가 알고 있는 살인자가 있는데, 그 살인자가 있는 천국에는 못가겠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 기준에 얹매어서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보지 못하는 사람 이지요. 내 속에 들보와 같은 엄청난 허물은 보지 못하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을 보며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도 내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할만한 사람만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랑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를 들어보십시오. 오늘 본문 32-34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 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 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 주면 칭찬 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 주느니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는 것, 다시 돌려받을 것을 기대하고 빌려 주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은 세상 사람들도 하는 행위이지요.

사랑에 조건이 붙으면 거래가 됩니다. 세상의 사랑은 거래입니다. 세상은 자신이 준 사랑에 대해 보답이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습니까? 내가 준만큼 돌아오지 않기 때문 아닙니까?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했는데!” 거기서 상처를 받습니다.

### 도전: 원수를 향한 사랑으로!

그리스 정교회 수도사인 스타레츠 실루안 (1866-1938)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원수를 위해 기도하면 평안이 찾아오고,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이 임한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기독교의 본질적인 신앙이 무엇인지는 죽음 앞에서 명확히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는십자가에서 마지막 말씀으로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기독교의 최초의 순교자였던 스데반 역시 죽음 앞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기에서 이런 질문으로 시작해 봅시다.

과연 ‘원수’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가만히 살펴보면 늘 ‘아군과 적군’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수’라고 말할 때, 그것은 절대적 가치 기준에 의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원수라고 정의한 사람임을 부인 할 수 없습니다.

조금 더 나아간다면, 우리의 정체성이 ‘원수’로 인해 조금 더 명확해 진다는 것입니다.

이분법적으로 보는 세상에서 원수가 없다면 나라는 존재도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헨리 나우웬을 이것을 ‘착각’이라고 했습니다.

온 세상을 나를 좋아하는 부류와 나를 싫어하는 부류로 나누며, 그러한 관계로 인해 존재한다는 생각 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핵심인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온 세상을 똑같이 사랑하셨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17-18절을 보세요.

못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망을 존대하라

사람들아 법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마태복음 5장 44-45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에는 차별이 없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우리의 사고와 하나님의 사고가 이렇게 다르다는 것이 놀랍니다.

그러니, 우리에게서 나오는 사랑과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사랑이 다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면 할수록 그것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이유입니다.

이제 이런 논리적 귀결에 다다르게 됩니다.

‘원수’란 지금 우리가 상대하고 있는 그 누군가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배제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기준이 될 때,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나누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처음 사랑을 명확하게 알고 있는 우리라면 역시 그 사랑을 나누지 않을 것입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는 “원수를 친구로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 사랑뿐이다. 본질상 사랑은 창조하고 세운다.”라고 했습니다.

에이브러햄 링컨은 “원수를 친구로 삼으면 이로서 원수를 무찌르는 것이 아닌가?”

### **원수는 우리를 파멸로 몰아갑니다.**

이유는 우리가 원수에게 우리 자신을 지배할 힘을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사람들을 증오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 증오가 도리어 나를 지배하는 것을 수없이 경험했다.

그들에 대한 증오심이 잠시도 나를 떠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에 대한 생각은 나를 장악하고 내 삶을 좌우한다. 그 결과 나는 평안을 잃고 질투와 원한과 복수심에 휩싸인다. 이는 그들을 계속 원수로 여기기 때문이다.”

하지만 원수를 사랑하면 자유를 얻습니다. 원수에게 내 주던 지배권으로부터 해방되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핵심은 자유를 얻는 것이고, 자유는 사랑함으로써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처음 사랑을 알게 되는 순간 우리는 미움과 배척과 질투와 원한의 감정에서 해방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지 못하는 때에는 여전히 원수가 존재합니다.

### 주님이 주시는 도전: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헨리 나우웬은 [예수의 길]에서 두 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원수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원수를 위해 기도합니까? 전혀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너무나 중요한 문제인 만큼 의지를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야 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처음 사랑을 깨달음으로 원수를 위해 기도할 수 있지만, 원수를 위해 기도를 시작하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둘째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용서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왜 우리들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용서하고 섬기는 일을 시작해야 할까요?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의 감정을 그대로 놔주면, 우리는 금세 그 감정에 함몰되게 됩니다.

**원수를 향한 사랑은 우리의 감정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따르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방식이 이제는 세상 것과는 다른 그 무엇을 하라는 부르심입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을 따르며 주님의 삶의 방식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도전은 우리의 율법적인 신앙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해야지, 내가 예수 믿으니까 조건 없이 사랑해야지!’라고 결심한다면 그 사랑이 얼마나 벼겁겠습니까? 아니, 그렇게 결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얼마나 절망하겠습니까?

이 용서와 사랑의 힘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먼저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순서

가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이 모든 사랑의 관계를 가능케 하는 기초가 됩니다. (자막 책표지)헨리 나우웬은 <예수의 길>에서 이 사랑을 ‘처음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처음 사랑에 접속되어야 합니다. 이 사랑에 닿는 순간, 우리는 잘못된 욕구와 상처의 사슬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힌 자가 될 것입니다. 그 사랑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이 처음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힘입니다. 예수님처럼 나를 미워하고 모욕하고 저주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 스스로에게는 없습니다. 아무리 뒤져봐도 내 안에는 없어요. 그 힘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한 자가 더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경험한 자가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할 힘이 없는 분들 계십니까?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으십니까?, 다시 한 번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4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속향했다. 내가 네 이름을 불렸다. 너는 내 것이다.

네가 길을 잃고 갈팡질팡할 때, 내가 함께할 것이다. 네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 가라앉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사면초가에 초해도, 그것이 네게 막다른 골목이 되지 않으리라.

나는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너의 구원자이기 때문이다.

나는 어마어마한 값을 치르고 너를 샀다. 너를 얻으려고 이집트를 다, 귀중한 구스와 스바도 같이, 내놓았다!

너는 내게 그만큼 소중하다! 내가 너를 그만큼 사랑한다! 너를 얻기 위해서라면 나는 온 세상도 팔 수 있다.

창조세계와 너를 맞바꿀 수도 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엄청난 도전을 가능케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삶을 따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걷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행동하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모든 것이 협통한다거나,

우리의 문제가 다 사라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단순히 기도한다고 우리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무모한 도전을 가능케 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의 역경을 없애 주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을 따르는 삶이 우리를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하는 순간, 더 이상 세상에서 외롭게 홀로 남겨지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게 되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따른다’는 독일어의 단어를 좋아 합니다. ‘nachfolgen’은 ‘따르다’라는 동사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뒤를 따른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 분의 발걸음, 발자취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깨뜨려

버린 어둠의 세상을 이제 주님이 함께 걷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아니, 그 분의 뒤를 따른다는 것은 그 분이 보여주신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에게 ‘동반자’라는 말이 들어옵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자가 듣게 되는 특권입니다.

동반자 ‘companion’라는 말은 라틴어 ‘com’(함께) 와 ‘panis’(빵)이 합성된 단어입니다.

즉, 동반자란 함께 빵을 먹는 관계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우리는 그 분과 함께 빵을 먹는 동반자가 됩니다. 빵을 먹는다는 것은 같이 삶을 영위하는 관계 속으로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걷는 길이 여전히 고달프지만 더는 외로운 싸움이 아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